

# 롯데, 스키·스노보드 선수단 격려... 8.6억 포상금 전달

밀라노 올림픽 영웅들 노고 치하  
“더 좋은 성적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롯데는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와 함께 19일 시그니엘 서울에서 스키·스노보드 국가대표단 격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며 대한민국 스키와 스노보드 종목의 위상을 높인 선수단과 지도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신동빈 롯데 회장을 비롯해 최취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교홍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위원장, 문체위 여당 간사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체위 야당 간사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최홍훈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또한 최가은, 김삼겸, 유승은 선수 등 메달리스트를 포함한 국가대표 선수단 및 지도자, 협회관계자 등 총 130여 명이 함께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우수한 성과를 거둔 선수 및 지도자에게 총 8억



신동빈 롯데 회장(맨 왼쪽)이 19일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 서울에서 열린 2026 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스키·스노보드 국가대표단 격려 행사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롯데그룹

6000만 원의 포상금과 기념품을 전달했다. 금메달을 획득한 최가은 선수에게는 3억 원을 수여하며,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한 김삼겸 선수와 유승은 선수에게는 각각 2억 원과 1억 원을 전달했다. 또한 6위를 기록한 이재운 선수에게도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헌신해 온 스노보드 하프파이프·빅에어와 알파인 종목 지도자에게도 총 2억 50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졌다.

포상금 및 선물 전달식과 함께 지난

12년간 롯데와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 국가대표 선수단이 함께 성장해 온 과정을 담은 기념 영상이 상영되며, 메달리스트들이 직접 대회 준비 과정과 경기 뒷이야기를 전하는 메달리스트 토크쇼도 진행됐다.

이번 2026 밀라노 코르티나동계올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 스키·스노보드 선수단은 불모지로 여겨지던 설상 종목에서 사상 첫 금메달을 포함해 총 3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업계는 이러한 성과의 배경으

로 선수와 지도자들의 노력과 함께 2014년부터 이어진 롯데의 지속적인 지원을 꼽고 있다.

롯데는 2014년부터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 회사를 맡아 스키와 스노보드 종목 육성을 위해 300억 원 이상을 지원해 왔다.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금을 포함하면 800억 원의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신동빈 롯데 회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협회장을 맡아 재임 기간 유망주 발굴부터 국가대표 육성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신 회장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월 대한체육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롯데 관계자는 “국제대회에서 값진 성과를 거두며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전한 스키·스노보드 선수단과 지도자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훈련과 대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중진공·법무부, ‘사천희망센터’ 개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법무부가 경남 사천에 수형자 사회복귀를 돕는 ‘사천희망센터’를 열었다. 19일 경남 사천에서 진행된 사천희망센터 개관식에서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왼쪽 두번째), 이홍연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 강승준 신보 이사장, 수출기업 현장점검

강승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취임 후 첫 공식 행보로 지난 18일 중동상황 등 대내외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방문해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 강승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왼쪽 두번째)과 관계자들이 현장 시찰을 진행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 SK바사, ‘박만훈상’ 수상자 발표

월터 A. 오렌스타인, DCVMN 선정  
안재용 사장 “공중보건 증진 기여”

글로벌 예방접종 정책 발전과 백신 생산 역량 확대에 기여한 인물과 기관이 백신업계 노벨상인 ‘박만훈상’의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국제백신연구소(IVI)는 ‘2026 박만훈상’ 수상자로 미국의 백신 정책 권위자인 월터 A. 오렌스타인(Walter A. Orenstein·사진) 교수와 개발도상국 백신생산 기업 네트워크(DCVMN)를 각각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후원하고 IVI가 주최하는 박만훈상은 국내 세균백양 백신의 선구자인 고(故)박만훈 SK바이오사이언스 부회장의 업적을 기리고자 2021년 제정돼,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올해 개인 수상자로 선정된 월터 A. 오렌스타인 교수는 현대 예방접종 정책과 면역 프로그램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공중보건 전문가다. 그는 1988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산하 국가면역 프로그램 책임자를 맡아 미국 아동 예방접종률을 크게



높였고 이후 게이츠 재단에서 면역프로그램 부국장을 맡아 소아마비 퇴치, 홍역 통제, 개발도상국 정기 예방접종 체계 강화 등 글로벌 예방접종 확대 전략 수립에도 기여했다. 단체 수상자인 DCVMN은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개발도상국 백신생산 기업 네트워크로, 2000년 설립돼 백신 생산 역량 강화와 접근성 확대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박만훈상을 수상하신 분들을 비롯해 세계 공중보건 수호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께 존경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한다”며 “SK바이오사이언스 또한 고(故) 박만훈 부회장의 정신을 이어 혁신적인 백신 개발과 안정적인 공급에 앞장서며 전 세계의 공중보건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박만훈상 시상식은 고 박만훈 부회장 타계 5주기를 기념해 내달 23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 천신일 세종그룹 회장 별세... 향년 83세

국내 최초 석탄화학 기업 설립

천신일 세종그룹 회장 겸 우리옛돌문화재단 이사장(사진)이 17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3세.

국내 최초의 석탄화학 기업 창업주이자 여행·IT 산업의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1943년 부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남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1974년 국내 최초의 석탄화학 기업인 제철화학을 설립하며 본격적인 기업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82년 세종을 창업하여 여행과 정보기술(IT)을 결합한 혁신적인 경영을 통해 세종그룹을 견실한 중견기업으로 성장시켰다. 특히 세종나모여행을 통해 추진한 ‘한강 유람선’ 사업은 대중에게 그의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고인은 산업계뿐만 아니라 체육과 문



화 부문에서도 큰 족적을 남겼다. 특히 우리 문화재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우리옛돌문화재단을 설립하여 해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유산을 되찾는 데 앞장섰다. 평생 모은 전통 석물 2000여 점을 바탕으로 2000년 경기 용인시에 ‘세종옛돌박물관’을 설립했다. 2015년 서울 성북구 성북동 자택 인근으로 이전해 ‘우리옛돌박물관’으로 재개관했다. 일본에 유출된 문화재 환수 활동 공로로 2002년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고인은 문화재 환수 노력의 결실로 사재를 출연해 우리 문화재를 지키고 확고한 신념과 실천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억되고 있다.

/최규춘 기자 ch9720@



## 키움증권, e스포츠 구단 DRX 후원

키움증권이 e스포츠 구단 DRX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네이밍 스폰서십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우성 키움증권 대표이사(왼쪽)와 박정무 DRX 의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키움증권



## NHN-한국기원, 콘텐츠 제휴 계약

NHN은 19일 한국기원과 콘텐츠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웹보드 게임 ‘한게임 바둑&오목’에 사할 콘텐츠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양재호 한국기원 사무총장(왼쪽)과 오상민 NHN 클래식웹보드사업그룹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N

## 세아홀딩스, ‘가장 윤리적인 기업’ 선정

에티스피어 선정... 3년 연속 성과

세아홀딩스는 글로벌 윤리경영 평가 기관 에티스피어로부터 3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는 전 세계 17개국, 40개 산업 분야에서 총 138개 기업이 선정됐다. 세아홀딩스는 국내 기업 최초로 3년 연속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 인사

◆기획예산처 ◇승진 △기획조정실 혁신행정 담당관실 심치애 △미래전략기획실 상생협력 전략과 김영옥 △예산실 투자사업관리과 안성희 △복권위원회사무처 기금사업과 박준하

세아홀딩스는 체계적인 윤리·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을 바탕으로 리스크 평가와 내부감사 등 전반적인 컴플라이언스 관리 성숙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3자 리스크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 온 점도 글로벌 기준을 웃도는 성과로 인정받았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 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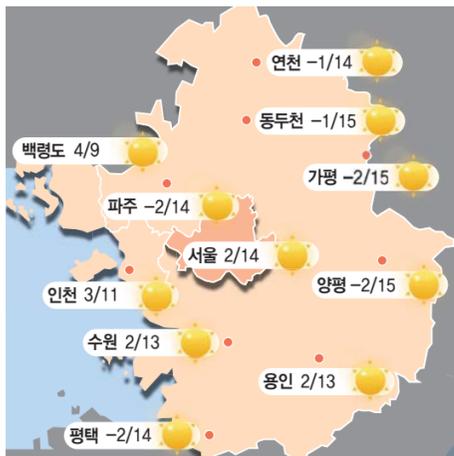
▲박판재씨 별세, 박성은(신아일보 생활유통부장)씨 부친상 =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21일 오전 6시30분, 서울시립습화원. 02-2224-2193

### 오늘의 날씨

3월 20일(금)  
음력: 2월 2일

수도권 날씨  
2 ~ 14°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